ISSU

23rd Recruitment

issu
연세대학교IT경영전략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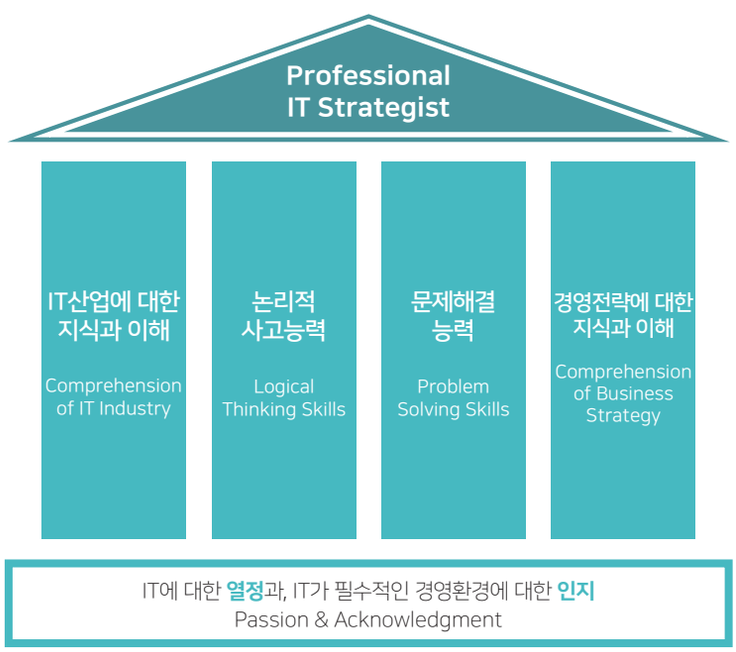
About ISSU

> “ISSU는 1997년 설립되어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은 연세대학교 유일의 IT경영전략 학회입니다.”

VISION

ISSU는 IT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전공과 학년의 연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SU에서는 **IT가 필수적인 현 시대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IT와 경영전략이라는 두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 및 기업연계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급변하는 IT환경에서의 IT 전략가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ISSU의 로고에서, 서로 연결된 각각의 큐브는 ISSU의 Core Value를 상징합니다.

1) Logical Thinking 2) Professionalism 3) Passion 4) Communication

ISSU에서는 이 4개의 핵심 가치를 포용하고, 서로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궁극적인 인재상을 표방합니다. 또한 ISSU에서 I(ISSU)와 U(You) 를 연결하는 SS를 형상화한 로고를 통해 신입 학회원이 4가지의 핵심 가치를 함양하여 진정한 이슈인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교수님 인사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승현

ISSU에서는 IT산업 및 IT경영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기업 연계 실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에 적용 가능한 경영 지식을 갖춘 IT 전략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ISSU에서는 IT산업과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쌓게 되는 IT 케이스 스터디 세션, 학습 내용을 실제 IT기업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산학협력 세션, 실제 IT 활용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우고 구현해 보는 코딩세션, 그리고 IT 트렌드에 대해 공부하고 신문에 기사를 기고하는 IT 칼럼 세션 등 IT전략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OB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최신 IT산업 동향에 대해 듣고 관련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IT는 기업 성장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미래의 기업 IT전략을 이끌 인재가 될 여러분을 ISSU로 초청합니다.

회장단 인사말

ISSU는 1997년 설립되어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은 연세대학교 유일의 IT경영전략학회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400여 명의 IT전략가를 배출하였으며, 이분들은 ISSU의 큰 버팀목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날 IT 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서 IT를 빼놓고 논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SSU는 기업에서 원하는 IT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IT의 경영적 활용가치를 발굴해나갈 수 있는 IT전략가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IT산업이 끊임없이 변하듯, ISSU도 매 학기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ISSU에서는 이미 우수한 인재보다, 저희와 함께 IT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적 마인드를 성장시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의욕과 열정만 있다면 지금 바로 ISSU에 지원하세요.
ISSU가 여러분의 길잡이이자 든든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ISSU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유의미한 결실로 만들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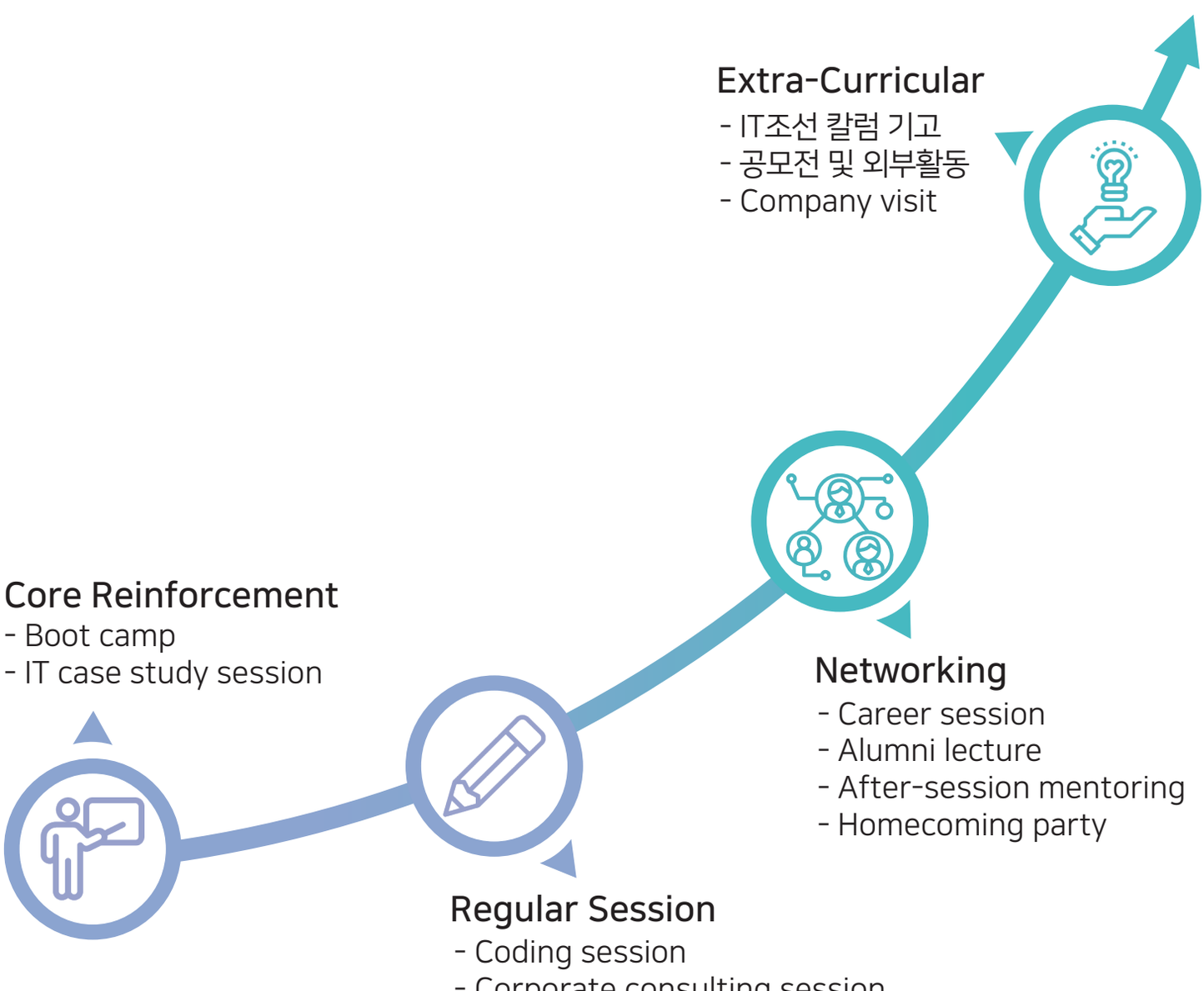
ISSU와 함께 성장할 여러분을 기다리며,

ISSU 22-2기 회장단 드림

About Session

ISSU는 매학기 IT 스터디 세션, 알럼나이 및 외부 인사 초청 세션,
IT기업과의 산학협력 세션을 통해 IT 전략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직무별 커리어 세션, 멘토링 및 홈커밍 등의 네트워킹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IT커리어의 초석을 쌓아갑니다.

ISSU Session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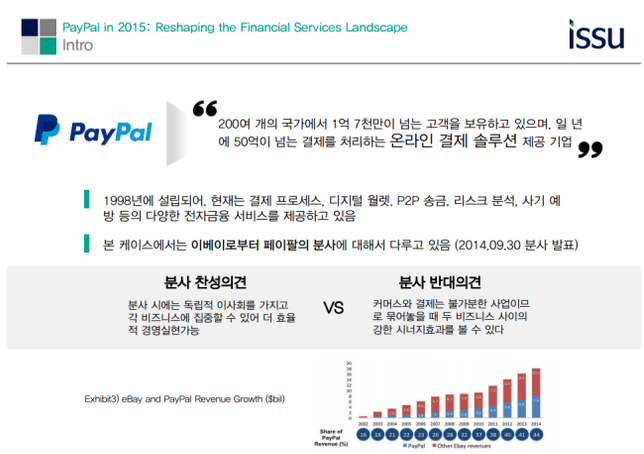
Core Reinforcement

Boot Camp

ISSU의 Boot camp는 신입 기수의 학회 활동 적응과 후반기에 진행될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세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 기본적인 소양부터 문제 정의 및 해결 능력까지, 학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3년간 쌓아온 ISSU만의 노하우와 Skill set은 신입 학회원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며, 끊임없는 피드백과 개선을 통해 매 학기 Perfection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IT Case Study Session

ISSU는 매 학기 IT 산업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앞서 Boot camp에서 터득한 Skill se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본인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개념과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고 적용하며 해당 IT 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게 되는 세션입니다. 학회원들의 Output에 대해 해당 IT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알럼나이 분과 타 학회원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 이후엔 알럼나이 분께서 해당 산업과 실무 프로세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IT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ISSU의 학회원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의 진정한 IT 전략가로의 면모를 다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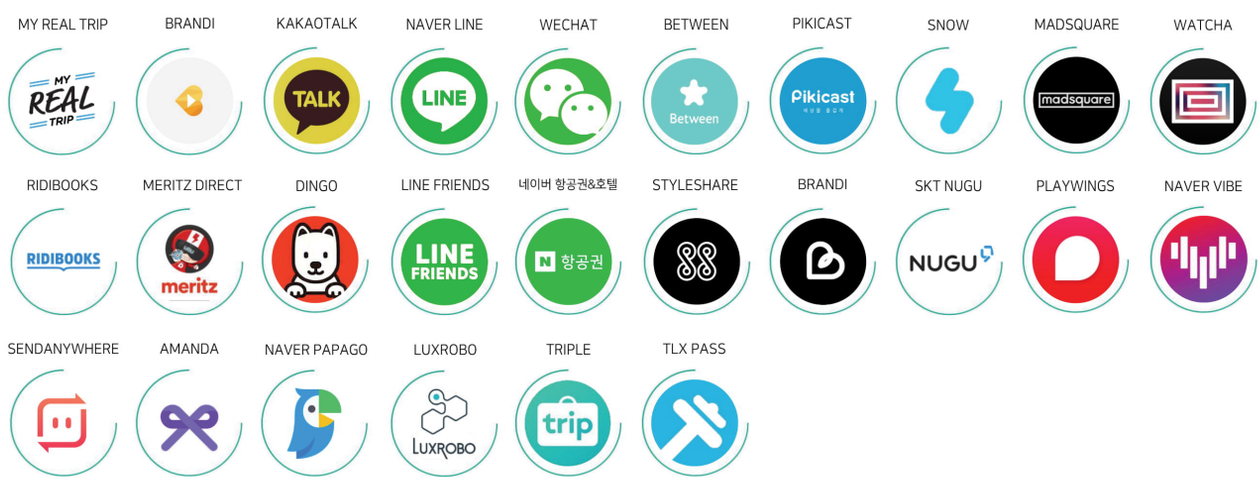


Regular Session

Coding Session

Coding Session은 코딩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기능을 구현해보는 세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Java의 기본 문법을 익히기 위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학회원들은 기본 문법 위주의 공부와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익히고, 추후 다른 언어를 접하더라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문법 공부와 실습 후에는 팀을 나눠 동일한 주제에 대한 Final Project를 진행하고, 팀별로 결과를 공유합니다.

Corporate Consulting Session



ISSU에서는 매 학기 다양한 IT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IT 기술 및 산업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경영 전략적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Corporate Consulting Session은 IT 기업의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미션을 해결하고, 실무자로부터 콜라보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세션입니다. 본 세션을 통해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내는 팀은 인턴 등 커리어로 연결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ISSU Networking

1997년 설립된 ISSU에는 약 400여 분의 ALUMNI가 계십니다.
각계 각층에서 활약중인 ISSU ALUMNI는 ISSU의 가장 큰 자산이자,
든든한 버팀목 입니다.

We proudly present our
ALUMNI NETWORK

대기업 (30%)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U+, CJ ENM, P&G,
SSG닷컴, LG전자

IT 업계 (20%)
Google Korea, Microsoft, 카카오,
네이버, 쿠팡, NCSOFT, NBT

창업/스타트업 (5%)
하이퍼커넥트, 당근마켓, 코드잇

공기업/공공기관 (10%)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외교부, KDB산업은행

컨설팅 (5%)
Oliver Wyman, Arthur D. Little,
PwC, Accenture

금융 (10%)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신한은행,
Morgan Stanley, HSBC

학계 (10%)
연세대학교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타 (10%)
김장 법률사무소, 삼일 PwC,
SBS, 에코마케팅

ISSU Networking

Career Session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OB 선배님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관심 있던 커리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결정과 관련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습니다.

Alumni Lecture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알럼나이 및 외부인사를 초청해 학기 학습 목표와 연관된 강연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회원들은 해당 커리어와 산업에 관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After-Session mentoring

일명 '이슈만나'를 통해서는 정규 세션 이외에도 관심있는 분야에 계신 OB 선배님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실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Homecoming Party

ISSU 홈커밍은 1기 선배님들부터 액팅멤버까지 모든 이슈인들이 모이는 ISSU의 가장 큰 행사이자 선후배 간 교류의 장입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부터 재학생들까지, 1997년 설립 이후 23년 동안 축적된 훌륭한 동문 네트워크는 ISSU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Extra-Curricular

IT 조선 칼럼 기고

IT Column Session은 IT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 탐구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IT 조선에 기고하는 세션입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5G,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며, 깊이 있는 자료조사와 산업, 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는 관심 분야에 대해 대학생의 시각으로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취재 및 제언을 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ISSU 내의 중간 피드백과 IT조선 측 피드백을 거쳐 수차례 보완한 후, 최종 칼럼을 완성하고 세션 중 탐구한 IT 분야에 대해 공유합니다.

2019-2
- 오프라인 매장의 히든카드, O2O 커머스
- 사람을 닮아가는 AI음성 비서
- GAN: 감쪽같은 가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 AI 면접: 현재와 미래 방향성
-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시티
-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 누구에게
- 빅데이터 시대 '나는 누구인가'
- 자율 주행과 TOR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헬스케어
- 가짜뉴스를 만드는 AI, 가짜뉴스를 잡는 AI
- 블록체인,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키를 잡을 수 있을까 '음원시장을 중심으로'

2019-1
- 인공위성영상 분석과 정보우위 '경제적 가치와 국가 안전'
- 나는 인공지능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 진정한 무인매장이란 무엇인가
- 미래 성장을 위한 국내 MaaS 도입 검토의 필요성
- 데이터 필터링 기반 타겟 광고를 경계해라 '페이스북 사례를 중심으로'
- 모두가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
- 비트코인 투기 열풍, 규제가 답일까?
- 범죄 수사에 AI 기술의 적용

2018-2
- 식품 유통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 중국 안면인식 기술, 6만명 속에 숨은 범죄자도 찾아낸다
- AR/VR을 활용한 가상 피팅의 상용화

2018-1
- 블록체인 기반 투표의 미래
- 예술 분야에 진입한 AI

▼ 2019년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시티 (22기 이솔미)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루프 2.0 프로젝트. / marineterrein Amsterdam 갈무리

암스테르담의 서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 '좋아요'를 100개 이상 받으면 지자체가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미국 뉴욕은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형 스마트 시티 중 하나다. NYC 오픈데이터 포털과 Open Data Dashboard를 구축해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한다.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는 민간 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모전 및 외부활동

ISSU에서는 뜻이 맞는 학회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각종 공모전 및 대외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ISSU에서 합을 맞추어 온 검증된 인재들로 이루어진 팀은 우수한 실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ISSU에서는 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IT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난 학기에는 고려대학교 정보기술경영학회 ITS와 WIS (World IT Show) 박람회에 참석하는 연합세션을 가졌으며, 이번 학기에는 IT조선 측의 초대로 <클라우드 2020 컨퍼런스>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Company Visit

Alumni 분들이 재직하고 계신 기업들을 탐방해보고 관련 산업과 기업에 대한 현황과 실제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글 코리아, 네이버, NCSOFT, 카카오 등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향후 학회원들이 커리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cruiting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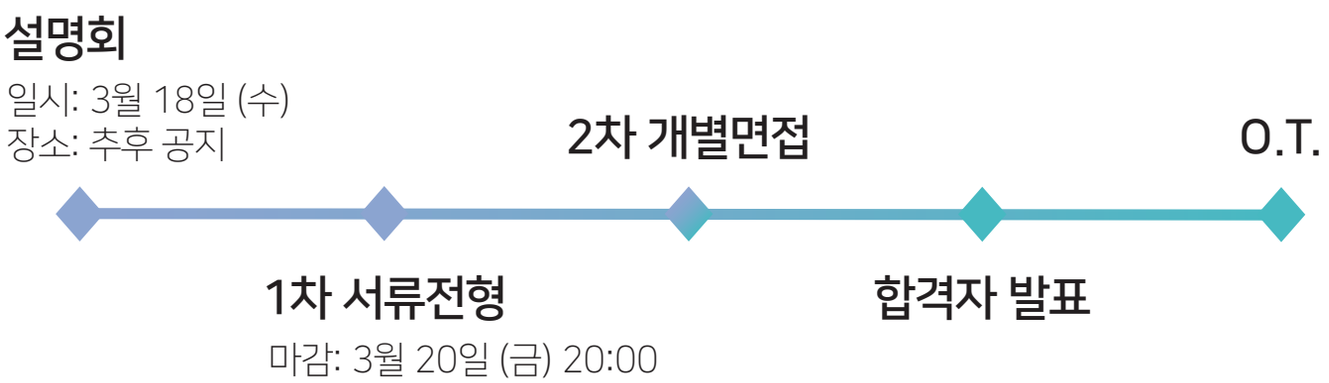
ISSU의 23기 모집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설명회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될 예정이니 추후 공지 확인 바랍니다.

1차 서류전형 ISSU 홈페이지(www.issu.biz/process)를 통해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issuyon@gmail.com으로 첨부하여 발송해주시길 바랍니다.

2차 개별면접 서류전형을 통과하시면 지원서를 바탕으로 개별면접이 진행됩니다.

합격자 발표 모든 면접이 끝난 후 전화통화와 문자를 통해 합불합 여부를 개별로 통지합니다.



Who is NEXT?

ISSU는 다음과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 **IT기업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
- **2학기 이상** 성실히 활동 가능한 분 (불연속가능)
-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정규세션에 참여 가능한 분

FAQ

Q1. IT나 경영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지원이 고민됩니다.

A. ISSU에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IT나 경영 관련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지원자의 성실함과 열정만 있다면 학회 활동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Q2. ISSU 활동을 하면서 학점 관리가 가능할까요?

A. 물론 ISSU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주 수, 토 이루어지는 정규세션 이외의 시간에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험기간에는 3주간 휴회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점 관리가 가능합니다.

Q3.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하여
약 30분 간 개별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Q4. 코딩 능력이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ISSU에서는 자체 제작 가이드북을 통해 코딩 능력을 배양하는 세션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Q5. 학기 중 세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요일 7-9시, 토요일 2-5시 입니다.

Q6. 반드시 두 학기 연속 활동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슈에서는 불연속 활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7. 방학 중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A. 방학 중 정규세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학기 리크루팅 및 세션 구성을 위한 액팅 멤버간 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구성하여 방학 중 공모전이나 추가 코딩 스터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Alumni Message

20기 황경현 | 네이버 바이브 | 서비스기획

ISSU는 관심사 중 하나에 불과했던 IT를 업으로 삼게 되는 가장 강력한 계기이자 용기가 되었습니다. 막연히 "서비스 기획을 하고싶다"고 생각만 하던 저는, ISSU 활동을 통해 좋은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서비스를 통해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방법과 방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ISSU에서의 배움과 경험은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비스 기획자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IT분야로의 커리어를 꿈꾸고 있다면, ISSU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성장과 진로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9기 조법룡 | 삼성전자 | 개발

ISSU는 IT 업계와의 첫 접점이었습니다. IT 업계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갓 복수전공을 시작했을 무렵 여러모로 막막했는데, ISSU 덕분에 업계와의 거리를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선배/동기들과 함께 좁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ISSU 활동을 하면서 그간 단순히 넘겨봤던 수많은 IT 서비스들의 화면들이 얼마나 치열한 고민의 산물인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기술적인 측면은 아니었지만 기획의 관점에서 문구 하나, 버튼 하나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신경쓰면서, 각각의 화면에 무엇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증명하려 한 흔적들은 '프로'란 무엇인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획이든 혹은 다른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든, 경영대 내에서 IT 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난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ISSU에 들어올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기 장정화 | 디라이트 | 변호사

저는 친구따라 강남가듯 ISSU에 들어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MIS 수업을 듣고,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며 IT분야,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관심은 졸업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ISSU 활동을 하며 갖게 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스타트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ISSU로 이끈 친구와도 서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발전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ISSU인이 되어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넓은 세상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17기 신동섭 | 스타트업 대표 | 창업

사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던 학회입니다. 삼성과 애플은 핸드폰을 만들고 네이버와 구글은 검색을 하는 회사구나 정도의 배경지식만 갖고 있던 평범한 학부생이었습니다. ISSU 활동을 통해 창업자, VC, 서비스 기획자, 개발자로서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앞으로 이 바닥에서 먹고 살겠구나 하는 작은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혹독하게 시장의 평가를 받는 IT업계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ISSU에서 얻은 그 작은 실마리를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작은 실마리로 저는 창업을 시작했고, 평일과 주말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일이 재밌는 삶을 살고 있으며,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ISSU에 들어와서 저처럼 작은 실마리를 얻어가세요. 그럼 학부생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거라 생각합니다.

16기 나성균 | 하이퍼커넥트 | 오퍼레이션 기획

다양한 콜라보 세션을 진행하면서 업계의 고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슈 활동 덕분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성취감을 (그리고 실패감도) 느끼는 경험도 해봤고, 업계에 계신 alumni의 조언을 들으며 배움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바로 벤쳐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생소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슈 활동을 하면서 여러 업계의 이슈들을 접하고, 현업의 고민을 다함께 생각했던 과정에서 업계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췄던거 같습니다. IT 업계에 관심이 있거나, IT업계에서의 커리어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활동하시고, 많은 노력과 배움 그리고 경험들을 직접 체험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19기 김지선 | 현대자동차 | 커스터마이징 사업

대학 재학 당시, 열 개가 넘는 대외활동을 했었지만 ISSU 활동을 했었을 때만큼 기업이랑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적은 없었어요. 네이버, 메리츠, 브랜디 등과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통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이용했던 서비스가 어떻게 기획되고 탄생하는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경험들이 취업을 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줬구요! 빽빽한 수업에 과제에 후배님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회사와 협업하며 경험치도 쌓는 ISSU 활동 한번 시작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거에요!
예비 ISSU인들 항상 응원합니다 :)

18기 오경은 | SSG닷컴 | 서비스기획

IT분야에 대해 공부할수록, 세션 과제를 풀어나가는 이슈 친구들을 만날수록 겸손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세상 속에 안주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비슷한 커리어를 꿈꾸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 각오로 노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슈를 통해 '서비스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고, '서비스기획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애정하고 보람있는 나의 일을 만나게 해준 감사한 존재입니다.
"행복은 빈도(frequency)"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기쁨을 느낄 기회가 많아지고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앎' 또한 빈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정보도 새로운 앎의 기회로 만들며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슈가 여러분들에게 앎의 빈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8기 서진원 | 쿠팡 | Corporate Development 심사역

경영학 복수전공을 하였는데 수업만으로는 제가 궁금했던 실무를 배우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때마침 유수의 스타트업들과 콜라보 세션을 하는 ISSU를 접하게 되었고, ISSU에 조인하여 스타트업이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지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콜라보 세션을 통해 학기 후 인턴 경험도 쌓을 수 있었고,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졸업 후 제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ISSU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생각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왓챠의 박태훈 대표님, VCNC의 박재욱 대표님 및 여러 대표님들을 뵙고 발표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훌륭한 창업자분들로부터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과 여러 방면의 조언과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배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예비 ISSU인분들도 제가 받았던 자극, 배움, 네트워크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SSU
연세대학교IT경영전략학회